

# 朝鮮, THE MORNING CALM

21호

1892년 3월

## □ 서지사항

- 제목 : 〈朝鮮, THE MORNING CALM〉 21호
- 발행인 : 영국성공회 조선선교회
- 발행지 : 영국 런던
- 발행일 : 1892년 3월
- 페이지수 : 20(표지 포함)

## □ 목차

Cover	(i)
The Mission	ii
Hospital Naval Fund	ii
St. Peter's (Kilburn) Association For Foreign Missions	iv
Education Fund	iv
March (3월의 기도표)	iv
The Bishop's Letter (주교통신, 1891년 11월에 서울에서 보낸 코프 주교 서신)	(25)
Notes (알림)	27
A Peep at Seoul by M. N. Trollope (서울 엿보기, 트롤로프 사제)	28
Association of Prayer and Work for Corea	31
The Spirit of Missions	33
Advertisement (광고)	36
Education Fund	v
Association of Prayer and Work for Corea	v, vi, vii
Sketch map of COREA & adjacent Countries (지도)	viii

## □ 해제

### 영국성공회 조선선교회가 런던에서 펴낸 잡지 〈모닝칼〉 21호

코프 주교(The Right Rev. Charles John Corfe, 한국명 고요한)의 서신에는 의료선교가 여성 의사와 간호사를 맞이함으로써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있다고 보고한다. 당시 조선사람들이 남녀 간에 내외하는 풍습을 알고 있었기에, 여성이 남성에게, 또는 남성이 여성에게 진료받거나 간호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한다. 트롤로프 사제의 서울 견문기가 실려 있다.

## The Bishop's Letter - 주교통신

1891년 11월, 조선의 서울에서

사랑하는 벗들께,

이번 달에 여러분은 일본에서 일어난 끔찍한 지진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아마도 우리 때문에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지진이 없었습니다. (...)

10월 말에 새로운 두 사람이 도착했고, 우리는 이들을 매우 기쁘게 맞았습니다. 쿡 선생(Miss Cooke)과 히스코트 선생(Miss Heathcote)인데, 두 분 다 훈련된 의료인력이며, 쿡 선생은 에든버러 분으로 의사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품고 있는 여러 의문을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여성들이 유럽인 의사들에게 기꺼이 치료받을 것인가? 병원이 지어지면 그들이 입원 환자로 올 것인가? 무엇보다도 궁금한 것은, 과연 남성들이 여성의 간호를 받을 것인가? 조선이 외국인들에게 문호를 개방한 지가 꽤 되었지만, 이러한 종류의 질문들은 아직 명확한 답이 없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스스로 그 답을 찾을 수 있게 되었기에 감사합니다. <모닝캄>지에서는 조선선교회의 이 새롭고 매우 중요한 사업의 진척 상황에 관해 종종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새로 온 분들을 맞이하기 위해 서울로 왔습니다. (...)

선교하우스에 붙은 옆방은 이분들(쿡 선생과 히스코트 선생)이 조선말을 익히고 환자들을 도와줄 여자 하인(조선에서는 큰 어려운 문제)을 구하는 대로 진료실로 사용할 방입니다. 처음이라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는 경우를 대비하고, 타국살이의 외로움과 낯섬을 덜 느끼도록 우리 중 한 명이 이 여성분들 근처에 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을 쓰기로 했고, 또 여기는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는 장림성당과 가깝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와일스 선생도 이곳이 여의사 쿡 선생의 진료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따라서 선교본부로서는 장림성당 성직자를 위해 건물이 더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지를 더 사야 한다는 뜻이지요. 기쁘게도 장림성당 옆의 건물이 매물로 나와 있어서 주저 없이 샀습니다. 낙동 것만큼 크지는 않아도 여러 가지 나무가 풍성한데, 거의 사계절 내내 매우 아름답습니다. (...)

데이비스 씨(성직후보자)가 낙동으로 돌아왔습니다. 트롤로프 사제와 피크 씨(성직후보자)가 원산 여행으로부터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꼭 찾습니다. 포널 부제와 랜디스 선생은 제물포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으며 일본인과 중국인 교실을 열어 한창 열심입니다. 새 교실은 매우 좋으며, 우리가 지은 이 건물에 감사할 거리가 많습니다. 올해는 겨울이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눈도 오고 서리도 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건강하며 여름철의 그 늘어짐을 지나왔으니 좀 단단하게 조여지기를 고대합니다.

참 중요한 사건인데 제가 깜빡 거의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 해군함대인 세번(Severn)이 제물포에서 닷새간 정박해 있었습니다. 홀함장(Captainn Hall)은 나의 절친한 친구입니다. 군종 사제가 서울로 간 바람에, 일요일에 제가 배에 올라가 그분의 일 몇 가지를 할 구실이 생겨서 어찌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모든 분이 제게 손을 내밀어 너무도 친절하게 맞이해 주었고, 우리 선교회에 관심이 있어서, 꽤 여러 사람이 선교회 건물과 성 미카엘 성당에 관심을 주었으

며, 무엇보다 병원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해군 자금으로 지어진 병원이 거의 완공되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제게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여러분 모두에게 하느님의 강복하심을 빕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다정한 벗입니다.

✧ C. J. 코프.

## Notes - 알림

몰타(Malta) 조선소-병원의 군종사제가 새해 전야에 코프 주교와 조선선교를 위해 설교했다는 내용과 돕기 운동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실려 있다. 이 잡지를 청소년과 잘 사용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또다른 소식도 실려 있다.

<모닝컴>지가 새해(1892년) 들어 편집 방향을 바꾸어, 중보기도를 따로 떼어내서 별도의 종으로 제작하고 그것을 삽입해서 보내고 있는데, 구독자 중에 이 중보기도 별지를 못 받았다고 연락해오는 분들이 꽤 있다. 판매자든 지역 봉사자든 이 점을 해결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다.

## A Peep at Seoul - 서울 엿보기 (1892년 1월호에서 이어짐)

글 끝에 트롤로프 사제(The Rev. Mark Napier Trollope, 훗날의 3대 주교, 한국명 조마가)가 쓴 것으로 나온다. 서울을 소개하고 있지만, 왕궁이 있고 행정부가 위치해 있는 곳이므로 조선에 관한 소개를 겸하는 글이다. 먼저 서울 성곽과 성문을 소개한다. 밤에 통행금지를 알리는 종이 있는데 옥스포드에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설명한다. 서울의 낮은 집들에 대해서는 별로 믿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적었다. 동서남북에 있는 문들과 가운데에 있는 대종(Great Bell, 지금 우리가 아는 보신각 종. 보신각이라는 종루는 1895년에 세워졌으므로, 지금 묘사는 그 이전의 모습)을 중심으로 길을 설명하고 있다. 도성 안에 사원도 절도 없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국가 차원의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불교라고 말하고 있다. 유럽인이 서울에 자리잡고 있는 모습, 그리스도 교계의 진출 현황도 소개하고 있다. 늘 깨끗한 흰옷을 입고 있다는 것, 조랑말 타고 다니는 것 등, 흥미진진하게 많은 것을 소개하고 있다. 이 글은 당시 유럽인들이 조선에 관해 잘 모르는 채로 일본이나 중국과 비슷한 옷을 입은 동류로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제가 이곳 서울의 주민들의 삶을 그릴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재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사진으로 찍어 보낼 테니, 편집자께서 모닝컴에 잘 넣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우리가 유럽에서 알고 있는 그 어떤 것과도 완전히 다른 이 기발한 민족에게는 엄청나게 흥미로운 점이 정말로 많습니다. 이들은 체격, 외모, 예절 및 관습, 의복, 언어, 역사, 그리고 실제로 모든 면에서 전적으로 구별됩니다. 동방 국가들, 즉 조선과 이웃해 있는 일본과도 중국과도 구별됩니다. 일상의 거리 풍경도 그림 같은 볼거리로 가득합니다.”

**Advertisement - 광고**

트롤로프 사제가 그동안 보내온 편지에서 조선과 조선사람에 관해 쓴 것들을 모아서 작은 팸플릿으로 만들었다. 필요한 분은 6½d를 보내달라고, 수익금은 선교 기금에 보태진다고 적었다.

**그래픽 자료 - 지도**

맨 뒤 표지에, 1호에 실린 한국 지도가 실려 있다. 자세한 설명은 1호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아침생각**

코프 주교의 의료 선교 사업이 한 단계 진보를 향해 한 걸음 더 내딛어졌다. 여성 의사와 간호사를 모신 것이다. 선교사들이 조선에 와서 가장 답답하고 안쓰럽게 생각한 것이 여성의 처지였다. 여성과 남성을 가르치는 장벽이 의료 문제에서는 더욱 심각하다고 보았다. 트롤로프 사제의 서울 견문기는 기록한 날짜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서울 온 지 반년 지나 쓴 것일 듯. 이제껏 조선선교회 누구의 글보다도 설명이 자세하고 또 시각도 새로워졌다. (✱)